

46%, 농촌 33%로 차지했다.

7) 분 만

분만 장소로서 가장 높은 것이 자기집으로 도시 53%, 어촌 67%, 농촌 81%로 나타났다.

또한 분만전에 진찰을 받아야 하느냐에서 전체에서 받아야 한다가, 62% 모르겠다가 28% 아니오가 10%이다.

이러한 것은 분만전의 진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적어도 분만 전에 수회 정도는 진찰을 받도록 계몽해야 하겠다.

8) 결핵 보건

결핵은 예방할 수 있는 병인가에서 옳은 답이 75%이고 유전되느냐에서 옳은 답이 31%, 어른한테만 걸린다가 58%로 나타났다.

전체 주민중 현재 결핵을 앓고 있다는 부인이 5명으로 1.7%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 결핵 이환율인 5.1%보다 성적이 좋다고 본다.

9) 행주에 대한 인식

행주는 살아야하나에서 정답이 90%이고 틀린답이 3%, 모르겠다가 7%인데 1주에 한번 이상 삶는다가 도시 72%, 어촌 23%, 농촌 34%이고 안 삶는다가 도시 8%, 어촌 23%, 농촌 40%나 나타났다.

10) 치아 보건

충치가 없는 부인은 도시 8%, 어촌 19%, 농촌 11%로 농촌이 높으며 숫자는 2개 이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도시 38%, 어촌 36%, 농촌 36%를 차지했다.

또한 충치가 언제부터 생겼느냐에서 도시 농촌은 20세 이전으로 도시 34%, 농촌 39%이나 어촌은 30세 이전으로 35%를 차지했다.

이상에서 도시 어촌 농촌으로 구분은 하였으나 조사지역에서 어촌이 농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도 농촌보다 시내와 교통이 가까운 곳이라 보건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고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계몽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보겠다.

보건소 근무 및 업무능력에 관하여

중앙의학 26권 4호, 1974.

고 송 자

1970년 12월 1일부터 동월 30일까지 강원도 일대 17개 보건소의 인구 및 인적사항, 예방접종량 및 전염병발생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) 의료요원의 현상황은 의사 33명, 치과의사 4명, 한의사 9명, 약사 18명, 간호원 52명, 간호보조원 150명, 기술요원 27명, 행정요원 200명 및 개업의료업자 180명으로서 유자격 보건요원의 보충이 시급히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.

2) 각종 전염병발생은 1968년에 장티프스 247명, 디프테리아 12명 및 뇌염 55명이 발생했고 1969년도는 콜레라 12명, 장티프스 174명, 디프테리아 17명, 뇌염 4명이고, 또 1970년도는 콜레라 228명, 장티프스 116명, 디프테리아 9명이고, 뇌염은 발생수가 없었다.

3) 예방약의 배정량은 1968년에 비하여 매년 증가되었다.

4) 접종능력의 강화를 위한 전담접종반 편성 및 예방약 저장시설 보완이 시급히 요청 되었다.

영아 영양법 및 이유실시에 관한 연구 — 경기도 인천시내 거주 영아를 중심으로 —

김 경 속

경기도 인천시 거주자로 최종아의 연령이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인 443명을 무작위추출법(Random sampling)으로 선택하여 그들의 일반적인 영아영양법 및 이유실시에 대한 실천상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영양법과 이유실시상의 경향과 문제점을 발견하여 간호사로서 어머니에게 실시하는 영아보건지도에 참고자료로 이용하고자 본 연구를 착수하였으며 그 조사성적은 다음과 같다.

1. 영아기 영양법

(1) 초생아기 영양법(생후 첫 3일 동안의 영양)

가정분만 108예 중에서 젖을 먹였다는 부인이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이하게 녹용을 먹인 부인도 2명 있었다.

(2) 영아기 영양법

전 대상아의 54.5% (241명)는 모유영양법, 33.1% (147명)는 혼합영양법, 12.4% (55명)는 인공영양법에 의해 양육되었다. 모유영양법을 가장 많이 시행한 부인의 연령은 35~39세(61.7%), 인공영양법은 40~44세(18.7%)와 20~24세(17.6%)에서 많았으며 혼합영양은 전 연령군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.

(3) 수유의 간격(Feeding interval)

이 질문에선 비교적 규칙적으로 먹였다고 한 부인이 263명(59.4%)으로 가장 많았고, 141명(31.8%)은 아기가 원할 때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먹였으며, 29명(6.5%)은 시계처럼 엄격한 규칙에 의해 먹였음이 관찰되었다. 영양별로는 혼합영양과 모